

성격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과 삶의 질 연관성

백영화 · 김호석 · 이시우 · 장은수*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Pattern

Young-Hwa Baek, Ho-Seok Kim, Si-Woo Lee, Eun-Su Ja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patter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The 529 subjects whose constitutions had been confirmed by the experts on the base of drug response were recruited. Personality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5 personal characteristics items measuring the influence of yin/yang and health estimating instrument was SF-12 evaluating the quality of life.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ce according to personality pattern.

3. Results

There were 5 different items in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7 different items in MCS(mental component summary). The individual scores of 3 items - give up easily/stand, decide easily/hard and be exited easily/rational-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4. Conclusions

We suggest that psychological factors may affect the health state, especially might affect the health state of Sasang Constitution differently.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Quality of Life, SF-12, Personality, Health

• 접수일 2011년 08월 01일; 심사일 2011년 08월 01일;
승인일 2011년 09월 14일
• 교신저자 : 장은수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체질의학임상연
구센터
TEL: +82-42-868-9291 FAX: +82-42-868-9388
E-mail: esjang@kiom.re.kr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I. 緒 論

성격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나타내는 지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함과 특정 상황조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간 지속되는 일관성의 두 가지 심리적 특징을 의미한다¹. 성인기를 거쳐 서서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²은 그 구조와 구성요소를 밝히려는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최근 성격을 평가하는 척도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5요인 성격 모형(Five factor model)으로 정립되었다³.

이러한 성격 유형은 건강 행위^{4,5}뿐만 아니라 심리정신적 상태⁶와 신체적 증상^{7,8}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혈압²이나 심혈관계 질환⁹ 등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가 삶의 질¹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상의학은 성격유형에 관심이 많은 학문으로 동무 이제마는 '체질별 장부대소는 애노희락(哀怒喜樂) 등 네가지 성정(性情)의 편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성정의 차이가 체질을 나누는 근본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보았다¹¹. 즉, 성정의 차이가 기의 승강호흡의 편차를 부르고 이 결과가 장부의 대소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이제마는 체질별로 본성이 표현되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각각 체질별로 항심(恒心)이 생기며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¹¹. 더불어 항심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이를 위해 회노애락의 중용적 조절을 중시하였다¹¹. 그러나 현재 사상의학에서 성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생리적 심리 특성 측면의 심신의학적 고찰보다는 체질판별을 위한 사상 유형 분류학에 사용되기 위한 도구적 의미로서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¹³.

사상의학에서 건강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는 건강 개념을 문헌 고찰하거나¹⁴ 전문가를 통한 건강지표 중요도 연구¹⁵, 완질환병 지표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¹⁶⁻¹⁹,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²⁰ 등에서 여러 요인들이 사상체질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성격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격 특성이 삶의 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상체질별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11곳의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체질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윤리심의를 통과하였으며(IRB 심의번호: I-0910/02-001),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체질 분포가 적은 태양인을 제외한 52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사상체질 진단

체질진단은 약리 기준을 바탕으로 사상의학 전문의 또는 사상체질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다²¹.

2) 성격 측정도구

성격 측정도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을 이용하였다^{12,22}(저작물 번호: 제 C-2009-002439호). 설문은 내향/외향, 적극/소극, 여성적/남성적 등 양적이거나 음적인 성격과 관련이 높은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적', '중간', '음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고유한 특성이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 하에 개별 문항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김 등의 연구²²에서 .801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5이었다.

3) 건강수준 측정도구

건강수준 측정도구는 Short Form-12 Health Surve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Taeumin (N=188)	Soeumin (N=135)	Soyangin (N=206)	Total (N=529)
Gender	Male	71(41.5)	38(22.2)	62(36.3)	171(100)
	Female	117(32.7)	97(27.1)	144(40.2)	358(10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74(43.8)	40(23.7)	55(32.5)	169(100)
	High school	51(35.4)	39(27.1)	54(37.5)	144(100)
	Over college	63(29.2)	56(25.9)	97(44.)	216(100)
Marriage*	Unmarried	34(35.8)	23(24.2)	38(40.0)	95(100)
	Married	137(35.1)	102(26.2)	151(38.7)	390(100)
	Divorced	3(30.)	0	7(70)	10(100)
	Bereaved	14(43.8)	9(28.1)	9(28.1)	32(100)
Age (yr)		51.5±16.1	47.6±15.1	47.0±14.5	48.8±15.5
SF-12	PCS	43.8±10.7	42.6±10.8	44.7±10.6	43.8±10.7
	MCS	46.0±10.0	44.7±10.1	44.9±10.4	45.3±10.2

no response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Questionnaire(SF-12v2)²³를 사용하였다. SF-12는 SF-36²⁴의 축약본으로 8범주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주는 다시 2개의 상위 개념인 신체적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와 정신적 건강지수(mental component summary, MCS)로 구성된다. 점수 산정은 문항에 따라 최고 3점에서 5점으로 실시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성격이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에 동시에 연관이 있다는 가정 하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점수화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67~.97였으며²³, 본 연구에서는 .858이었다.

3. 통계적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성격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적용했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성격과 체질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이원분산분석법(Two-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질과 성격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상호작용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체질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성격과 체질별 건강수준 연관 정도의 지

표 발굴을 목적으로 하여 p value<.1로 하였다.

Ⅲ. 結 果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체질은 태음인 188명(35.5%), 소음인 135명(25.5%), 소양인 206명(38.9%)이었고, 성별의 경우 남성은 태음인이 41.5%, 여성은 소양인이 40.2%로 많았다. 교육정도에서는 소양인이 대학교 졸업(이상) 44.0%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주를 이루었다. 체질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소양인 44.7, 태음인 43.8, 소음인 42.6점 순이었고($p=.229$), 정신적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태음인 46.0, 소양인 44.9, 소음인 44.7점 순서로($p=.453$)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성격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성격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의 차이는 5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행동 빠름느림에서는 중간에 응답한 군이 느리다에 응답한 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고, 적극-소극의 경우 중간에 응답한 군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에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적-정적에서는 중간에 응답한 군이 정적에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적·여성적의 경우 중간이 여성적에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속 이야기를 잘 드러냄-안 드러냄에서는 잘 드러내거나 중간인 군이 안 드러낸다고 응답한 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격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의 차이는 7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대범-섬세의 경우 중간에 응답한 군이 섬세한 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다. 적극-소극에서는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군이 소극적이거나 중간

Table 2. Difference of SF-12 Scale according to Personality Pattern

Personality	N	PCS			MCS		
		Mean±SD	p	Scheffe	Mean±SD	p	Scheffe
1 broadminded ^a	106	43.2±10.6	.222		45.2±10.7	.031	b>c
moderate ^b	214	44.8±10.7			46.6±9.6		
delicate ^c	209	43.2±10.7			44.0±10.4		
2 quick ^a	277	43.9±11.6	.038	b>c	46.0±10.0	.156	
moderate ^b	160	45.1±9.0			45.0±9.8		
slow ^f	92	41.6±10.4			43.7±11.2		
3 active ^a	253	43.0±11.7	.025	b>a,c	47.2±10.2	<.001	a>b,c
moderate ^b	193	45.5±9.5			43.9±9.7		
passive ^c	83	42.6±9.7			42.6±10.5		
4 direct	247	44.0±10.8	.973		46.0±10.2	.086	
moderate	128	43.7±10.3			45.6±9.3		
indirect	154	43.8±10.9			43.8±10.7		
5 give up	198	43.5±10.5	.612		44.1±10.6	.120	
moderate	184	44.5±10.6			46.0±9.9		
stand	147	43.5±11.3			45.9±9.9		
6 extrovert	118	44.9±10.2	.399		45.8±9.7	.795	
moderate	181	43.9±10.6			45.2±10.8		
introvert	230	43.3±11.1			45.0±10.0		
7 energetic ^a	214	44.6±10.8	.005	b>c	46.2±9.5	.137	
moderate ^b	136	45.4±9.9			44.1±11.0		
quiet ^c	179	41.8±11.0			45.0±10.2		
8 easily	174	44.4±10.9	.219		45.9±10.1	.115	
moderate	137	44.7±10.7			46.2±9.9		
hard	218	42.9±10.5			44.2±10.4		
9 masculine ^a	162	44.0±10.7	.039	b>c	46.1±10.1	.413	
moderate ^b	179	45.2±10.2			44.9±10.6		
feminine ^c	188	42.4±11.1			44.8±9.9		
10 impatient ^d	111	45.7±10.5	.103		43.0±10.7	.016	c>a
moderate ^b	120	43.9±9.7			45.1±9.3		
patient ^c	298	43.1±11.1			46.2±10.2		
11 moody ^a	222	44.0±10.9	.509		42.3±11.0	<.001	b,c>a
moderate ^b	174	43.2±10.4			47.6±8.7		
calm ^c	133	44.6±10.9			47.2±9.2		
12 open ^a	153	46.0±10.1	<.001	a,b>c	43.7±10.4	.066	
moderate ^b	138	45.2±9.4			46.3±9.4		
hide ^c	238	41.7±11.4			45.7±10.4		
13 express ^a	225	44.5±11.2	.105		46.3±9.9	.032	a>c
moderate ^b	162	44.4±10.0			45.5±10.0		
keep inside ^c	142	42.2±10.6			43.4±10.7		
14 excited ^a	286	44.1±10.7	.701		43.8±10.6	.001	b,c>a
moderate ^b	124	43.1±10.2			46.7±7.4		
rational ^c	119	44.1±11.3			47.3±11.2		
15 hastily ^a	124	44.6±10.6	.270		43.9±11.1	.049	c>a
moderate ^b	152	44.6±10.5			44.6±9.6		
carefully ^f	253	43.1±10.9			46.4±10.0		

에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고, 의견을 잘 표현·표현 안하는 편에서는 표현을 잘 한다고 응답한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참을성 부족·잘 참음에서는 잘 참는다고 응답한 군이 부족한 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감정 변화가 큰 편·적은 편에서도 감정 변화가 적거나 중간에 응답한 군이 크다고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흥분·이성의 경우 이성적이거나 중간이라고 응답한 군이 흥분한다에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덜렁·꼼꼼에서는 꼼꼼하다고 응답한 군이 덜렁댄다고 응답한 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높았다(Table 2).

3. 체질과 성격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삶의 질에 집단 간 차이는 이원분산분석 결과, 체질과 성격 특성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항목 중 체질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항목은 1개가 나타났다. 신체적 삶의 질에서는 '표현을 대놓고 하는 편·돌려서 하는 편'의 성격 특성과 체질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었으나 체질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소양인의 신체적 삶의 질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항목은 3개가 나타났다. 신체적 삶의 질에서는 '포기 빠름·느림'과 '결정 쉽게·어렵게'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포기 빠름·느림에서는 소음인이 포기가 빠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44.2, 느린 경우 38.9점이었으며, 소양인은 포기가 빠른 경우 43.1, 느린 경우 46.3점이었고, 태음인은 포기가 빠른 경우 43.6, 중간 44.4, 느린 경우 43.4점이었었다($p=.095$). 체질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정 쉽게·어렵게 에서는 태음인은 결정을 쉽게 하는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46.4, 어렵게 하는 경우 41.3 이었으며, 소양인은 결정을 쉽게 하는 경우 43.3, 중간이나 어렵게 하는 경우 각각 45.9, 45.2점 이었고, 소음인은 쉽게 하는 경우 43.6, 중간 혹은 어렵게 하는 경우 각각 42.5, 42.0점이었었다($p=.083$). 체질과 성격의 개별적인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었다(Table 3, Figure 1).

정신적 삶의 질에서는 '흥분·이상'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음인은 흥분하는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의 점수는 41.1, 중간 45.0, 이성적인 경우 49.8 점이었고, 소양인은 흥분하는 경우 43.9, 보통이거나 이성적인 경우 47.4, 45.1점, 태음인은 흥분하는 경우 45.0, 중간이거나 이성적인 경우 47.5, 47.2점이었었다($p<.001$) 체질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격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Table 3, Figure 1).

IV. 考 察

최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망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요인 중 하나인 성격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상의학의 경우 이러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김도성격 설문문을 통한 결과는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들이 섞여 나와 구별이 어려워 성격에서 나타나는 증후들과, 몸에서 나타나는 증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²⁵.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격 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시도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²⁶, QSCC II²⁷ 및 온라인 사상체질진단 설문프로그램²⁸ 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지표로 이미 활용중인 성격 문항이 있으나, 문항이 많아 별도 작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성격 설문은 체질전문가 4인이 체질별 성격 특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문항화한 것²²으로 항목이 적어 작성에 용이하고 체질 심리적 특성이 잘 반영됨과 동시에 한 문항에서 음적, 양적 성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심리적 체질건강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을 활용하여 체질별 건강지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체질에 따른 SF-12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점수는 소양인이 가장 높고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점수는 태음인이 가장 높고 소양인, 소음인 순이었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어 체질에 따른 삶의 질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는 손 등¹⁸과 장 등²⁹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Table 3. Difference of SF-12 Sca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Personality Pattern

Variable	PCS(Mean±SD)						MCS(Mean±SD)					
	Taeumin	Soeumin	Soyangin	p value			Taeumin	Soeumin	Soyangin	p value		
				A	B	AXB				A	B	AXB
1 broadminded	42.6(11.5)	44.9(7.3)	43.1(10.5)	.642	.272	.469	45.6(11.2)	45.2(6.4)	44.8(11.3)	.537	.041	.686
moderate	45.1(9.5)	44.1(12.6)	45.1(10.4)				46.4(9.3)	46.4(10.3)	46.8(9.4)			
delicate	43.2(11.2)	40.9(9.5)	45.1(10.8)				45.8(9.9)	43.3(10.4)	42.9(10.5)			
2 quick	43.4(11.5)	42.9(12.3)	44.7(11.1)	.236	.012	.24	46.5(10)	46.3(9.8)	45.4(10)	.168	.058	.674
moderate	44.2(9.5)	44.8(8.2)	46.6(8.7)				45.7(8.9)	43.8(10.4)	45(10.3)			
slow	44.1(10.8)	37.9(7.7)	40.6(10.3)				45.6(11.5)	41.1(9)	42.7(11.7)			
3 active	42.9(11.6)	41.5(12.4)	43.7(11.4)	.15	.018	.986	46.7(10.3)	48.2(10.2)	47.2(9.9)	.15	<.001	.256
moderate	45.4(9.9)	44.5(9.6)	46.4(8.8)				45.6(9.7)	42.8(8.6)	43.1(10.2)			
passive	43.1(8.9)	40.4(8.9)	44(10.9)				45.1(9.6)	42(10.9)	40.3(10.2)			
4 direct	43.6(11)	44.4(10)	44(11.1)	.083	.781	.335	45.6(11)	46(10.2)	46.5(9.5)	.26	.087	.457
moderate	43.7(11)	40.1(10.5)	45.6(8.8)				47.1(9.1)	45(8.6)	44.5(9.6)			
indirect	44.3(9.8)	41.7(11.5)	44.9(11.2)				45.7(9.1)	42.7(10.4)	42.7(12)			
5 give up	43.6(10.4)	44.2(10.1)	43.1(10.7)	.083	.457	.095	45.3(9.8)	44.4(10.4)	43(11.1)	.539	.214	.718
moderate	44.4(10.7)	43.5(10.6)	45.2(10.2)				46.4(10.1)	44.6(10.1)	46.7(9.4)			
stand	43.4(11)	38.9(11.2)	46.3(10.6)				46.4(10.1)	45.4(9.3)	45.7(9.9)			
6 extrovert	44.5(10)	41.7(10.9)	46.4(9.7)	.221	.703	.675	44.4(11)	48.5(8)	45.7(9.1)	.77	.529	.286
moderate	43.8(10.4)	44.1(10.4)	43.8(10.8)				46.2(10.1)	44.4(9.6)	45(11.7)			
introvert	43.5(11.2)	42(10.9)	44.2(10.9)				46.5(9.4)	43.7(10.7)	44.3(9.8)			
7 energetic	43.8(11.2)	41.6(10.8)	46.5(9.9)	.588	.008	.11	46.9(9.8)	45.9(9.3)	45.8(9.3)	.534	.183	.997
moderate	44.7(10.2)	46.5(9.4)	45.2(9.8)				45.1(10.9)	43.3(9.2)	43.8(11.9)			
quiet	43.3(10.3)	40.9(10.9)	41(11.6)				45.4(9.6)	44.8(10.9)	44.7(10.2)			
8 easily	46.4(10.2)	43.6(10.5)	43.3(11.4)	.201	.227	.083	45.7(10.3)	45.8(8.6)	46.1(10.6)	.519	.074	.558
moderate	45.2(9.5)	42.5(11.7)	45.9(10.5)				46.7(9.5)	46.8(10)	45.1(10.1)			
hard	41.3(11.1)	42(10.2)	45.2(9.7)				45.8(10.1)	42.4(10.7)	43.7(10.2)			
9 masculine	43.5(11.4)	43.2(9.2)	44.9(10.4)	.397	.068	.748	47.2(10)	47.2(7)	44.4(11.2)	.522	.283	.197
moderate	44.3(10.4)	44.6(10.5)	46.3(9.7)				45.4(10.5)	42.2(10.8)	46(10.1)			
feminine	43.7(10)	41(11.4)	42.5(11.4)				45.2(9.4)	45.2(10.4)	44.2(9.8)			
10 impatient	45.3(9.6)	44.9(10.8)	46.5(10.9)	.416	.105	.761	42.4(10.5)	43.7(12.1)	43.1(9.8)	.988	.035	.416
moderate	45.5(10.2)	43(10.4)	43.6(8.9)				44.2(9)	45.2(7.5)	45.5(10.1)			
patient	42.8(11.1)	41.7(10.7)	44.5(11.2)				47.8(9.6)	44.9(10.1)	45.4(10.6)			
11 moody	43.7(10.3)	44(10.5)	44.2(11.5)	.191	.34	.503	43(10.6)	41.6(10.9)	42(11.4)	.66	<.001	.856
moderate	43.5(10.5)	39.9(10.7)	44.9(9.5)				48.7(8.7)	46.3(8.1)	47.5(9)			
calm	44.3(11.4)	43.9(10.6)	45.3(10.2)				46.9(9.5)	47.9(9.3)	46.9(8.7)			
12 open	46.5(9.6)	45.7(9.7)	45.9(10.5)	.597	<.001	.829	44.5(9.9)	42.7(10.8)	43.6(10.4)	.441	.119	.417
moderate	45.6(8.8)	44.9(10.2)	45.1(9.3)				46.4(10.4)	44.1(9.7)	47.3(8.4)			
hide	41.9(11.4)	40(10.9)	43(11.6)				46.6(9.8)	46.1(9.6)	44(11.6)			
13 express	44.5(11.1)	44.8(9.6)	44.4(11.7)	.248	.124	.686	45.9(10.8)	46.4(9.4)	46.5(9.2)	.216	.023	.421
moderate	44.3(9.7)	42.8(12.1)	45.6(8.2)				46.7(9.6)	44.8(8.9)	44.8(11)			
keep inside	42.4(10.9)	40.3(9.9)	44(10.6)				45.5(9.1)	42.9(11.4)	41.3(11.3)			
14 excited	43.4(11)	44.1(9.9)	44.6(10.6)	.239	.072	.498	45(10.9)	41.1(10)	43.9(10.2)	.399	.004	<.001
moderate	44.9(9.1)	39.7(10.9)	44.5(9.7)				47.5(6.6)	45(7.9)	47.4(7.5)			
rational	43.9(11.2)	43.3(11.3)	45(11.3)				47.2(10)	49.8(9.7)	45.1(12.9)			
15 hastily	45.5(10.4)	42.1(10.4)	45.4(10.5)	.258	.329	.907	45.3(8.2)	41.6(10.4)	44.2(12.6)	.291	.028	.302
moderate	44.4(11.3)	44.1(9.6)	45(10.2)				45.4(11)	42.5(7.7)	45.1(9.1)			
carefully	42.9(10.4)	42.1(11.4)	44(10.9)				46.6(10)	47.4(10.3)	45.3(9.6)			

A=Sasang constitution, B=Personality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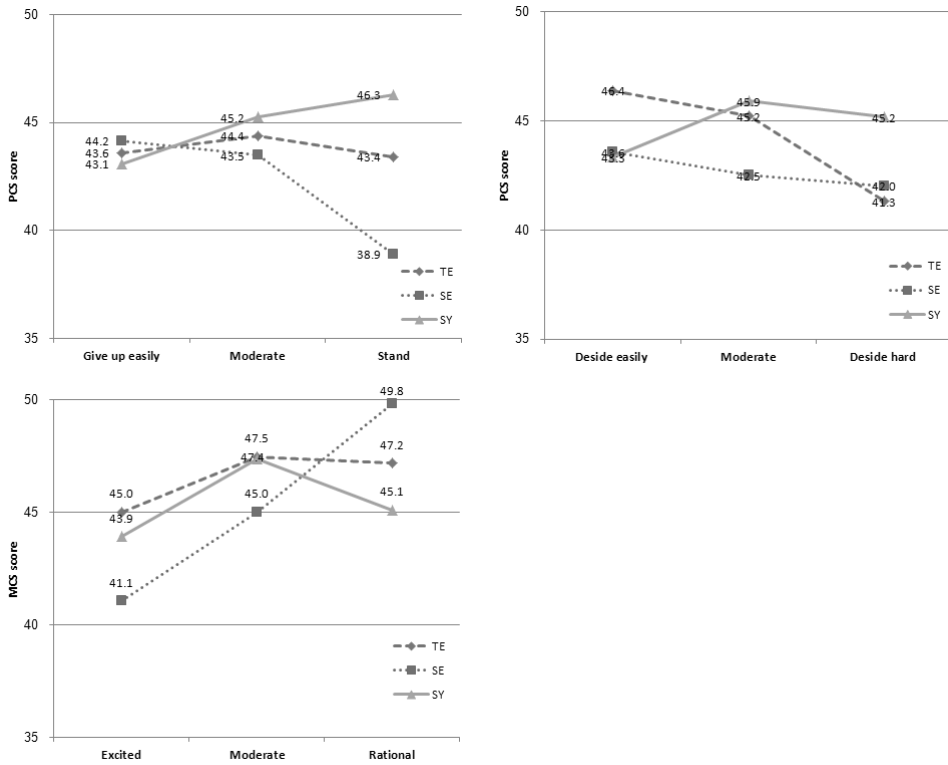


Figure 1. Association between SF-12 scales and personality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삶의 질은 행동 빠름-느림, 적극-소극, 동적-정적, 남성적-여성적, 속 이야기 잘 드러냄-안 드러냄과 같이 5개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신체적 삶의 질 점수는 행동이 느리고 정적이며 여성적인 등 음적 성격군이 중간 성격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적 삶의 질은 대범-섬세, 적극-소극, 의견을 잘 표현-표현 안하는 편, 참을성 부족-잘 참음, 감정 변화가 큰 편-적은 편, 흥분-이성, 덜렁-꼼꼼 등 7개의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정신적 삶의 질의 점수는 대범하거나 의견을 표현을 잘하는 양적 성향의 군인 경우 높았고 반면에 참을성이 있고, 감정변화가 적으며 이성적이고 꼼꼼한 음적 성향의 군에서도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음적 성향과 양적 성향 자체가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음-양의 경향성에 따라 건강평가지표가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성격과 체질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나 체질 간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 '표현을 대놓고 하는 편-돌려서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성격 특성과 무관하게 소양인이 대체적으로 신체적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의수준을 0.1 이하로 다소 높여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부분은 각 요인의 주효과에 대한 해석이 어렵긴 하나, 체질과 성격의 상호작용을 의미있게 판단하고 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소음인은 포기가 빠른 성격군이 느린 성격군에 비해 신체적 점수가 5.2점 높았으나, 소양인은 포기가 느린 성격군이 빠른 성격군에 비해 3.2점 높아 소음인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태음인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건강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

에서 소음인과 소양인이 실제 체질성향과 상호 반대적인 성향에서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난 것, 즉 소음인이 포기가 빠른 군과 소양인이 포기가 느린 군에서 건강상태가 높은 것은 소음인과 소양인의 체질장부생리가 반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런 경향은 결정의 난이 여부를 묻는 문항에도 나타났다. 즉 소음인은 결정을 쉽게 하는 군에서 신체적 점수가 1.6점 높았으나, 반대로 소양인은 결정을 어렵게 하는 군이 1.9점 높게 나타났다. 비록 소음인, 소양인에서 추세가 다소 약화되긴 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보인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¹⁾ 사상의의 장부특성이 소음인은 비대신소, 소양인은 신대비소로 상대적이라고 하였으며, 『사상초본권』에서³¹⁾ 성격심리가 소음인은 항상 한곳에 있으려 하고 나서지 않고, 소양인은 항상 위에 있고 그만두려하지 않는다하여 두 체질의 성향이 반대됨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각각의 장부특성과 성격심리가 본상지기 및 보명지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다소 상반된 경향이 해당 체질의 건강지표가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소 포기를 잘 못하는 소음인 그룹보다는 다소 빨리 포기를 한다고 소음인 그룹과, 포기를 빨리 하는 소양인 그룹보다는 다소 찬찬히 생각하여 포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소양인 그룹이 건강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족한 자기 특성을 보완하는 점으로 해석되는데, 이제마는 항심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음인은 한결음 나아가고, 소양인은 안을 살펴 깨끔 하는 것이 중용적 실천이라고 하였다¹⁾. 즉 성격심리적 건강 개념으로 볼 때 소음인은 양적인 성향의 그룹이, 소양인은 다소 음적인 성향의 그룹이 보다 더 건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태음인은 결정을 쉽게 하는 성격군이 그렇지 않은 군 보다 신체적 점수가 5.1점 높아 다른 체질에 비하여 결정을 쉽게 하는 군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의 변증론』에 따르면 '태음인에서 항심이 넘쳐 심에 영향을 미치면 정충의 병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항심의 넘침을 정신적 불건강과 연관시

키고 있다. 물론 결정의 쉽고 어려움 여부가 태음인 항심의 편안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연구 결과 결정의 난이 여부가 태음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

자주 흥분 하는 군의 경우 태음인과 소양인에서는 중간을 택한 군이 정신적 점수가 높는데 반해 소음인은 일관되게 흥분 성격군에서 이성 성격군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음인이 흥분 성격군에서 건강수준이 낮고, 이성 성격군에서 건강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흥분한다는 것은 소음인 항심의 상태인 불안정지심과 연관되어 항심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음인 중에서 흥분하는 군은 항심의 넘침과 연관되어 소음인 건강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반대로 이성적인 군은 소음인의 항심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로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어 좋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마는 애노회락 정신심리의 치우침이 체질별 항심과 연관되어 있어, 사상의의 성격 특성은 체질별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논하였다¹⁾. 또한 중용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은 항심을 편하고, 고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 실천 노력을 강조하였다¹⁾.

이런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을 어떻게 건강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성격 특성이 체질별 건강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 일부 성격심리적 요소가 체질별로 건강수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성격 개별문항을 사용하여 성격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었고, 대상자의 수가 적어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점, 그리고 체질간 연령 등 인구학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체질별 건강 차이를 나타내는 성격지표를 발굴함이 목표로 흔히 일반적 의학논문에서 유의수준이 0.05 이하인 것과 달리 유의수준을 0.1 이하로 다소 높여 그 유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서양의 경우 대표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인 SF-36²⁴⁾을 비롯하여, 기질을 측정하는 TCI³¹⁾와 성격 유형을

1) 恒欲處而 不欲出 恒欲舉而 不欲措

2) “太陰人恒有惻心惻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惻心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若惻心至於怕心則大病作而怔忡也”

살펴보는 NEO-PI³²에서 정신적 요소 및 성격심리적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정신심리적 부분이 건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질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때 정신심리적 부분이 이를 완성하는 한 축이 되기를 희망한다.

V. 結 論

본 연구는 성격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개의 성격 특성이 신체적 삶의 질과 연관이 있었고, 7개의 성격 특성이 정신적 삶의 질과 연관이 있었다. '표현을 대놓고 하는 편-돌려서 하는 편'은 성격특성은 삶의 질과 무관하나, 체질에 따라서 삶의 질이 차이가 나타났다. '포기 빠름-느림', '결정 쉽게-어렵게' 및 '흥분-이성'은 체질과 성격에 상호작용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이며, 실제 체질성향과 상호 반대적인 성격일 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정신심리적 부분의 체질건강지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VI.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Grant No. K10070).

VII. 參考文獻

- Allport GW.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Holt, Rinehart & Winston. 1961.
- Son YJ, Song EK. The Life Styl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ype D Personality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Korean J of Adult Nursing. 2007;19(4):644-655. (Korean)
- McCrae RR, Costa PT. Validation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7;52(1):81-90.
- Han IK. A Study on the Effect of Adult Female's Personality Type on Health Control Behavior and Obesity Stress. Korean J Nutr. 2009;42(4):358-365. (Korean)
- Kim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e, Personality, Situational Barrier,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Students. Korean J of Adult Nurs. 2004;16(3):442-451. (Korean)
- An JS, Chae KM. A Study regarding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The Korean J of Health Psychology. 2007;12(4):813-832.
- Angelina RS, Antonio T, Barbara D, Manuela U, David S, Edward GL et 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Biological Psychology. 2010;84(2):186-191.
- Mumford JM, Newton AV, Ley P. Personality, pain perception and pain tolerance. British J of Psychology. 1973;64(1):105-107.
- Song EK, Son YJ. The Analysis of Type D Personality Research as a Psychosocial Risk Factor in Cardiovascular Disease for Elders with a Chronic Disease. J Korean Acad Nurs. 2008;38(1):19-28. (Korean)
- Carsten W, Michael FS. Personality and quality of life: The importance of optimism and goal adjustment. Quality of Life Research. 2003;12(Suppl.1):59-72.
- 이제마. 동의학연구소 역. 동의수세보원. 서울:여강출판사. 1992:32-284.
- Kim JY, Kim HG.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nd.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124-138. (Korean)
- Chae H, Park SH, Lee SJ, Koh KC. Sasang Typology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J Korean Oriental Med. 2004;25(2):151-164. (Korean)
- Lee TG, Hwang MW, Lim JH, Jung YJ, Kim SB, Lee SK, et al. A Study on 'Health' conc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88-99. (Korean)
- Jang ES. Hwang JH, Kim SH, Lee SW, Kim JY.

- Study on the Weight of Health Evaluation Index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6):1267-1272. (Korean)
16. Baek YH, Yoo JH, Kim HS, Jang ES. The Association between Symptom Evaluation Index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Men. J Sasang Constitut Med. 2010;22(2):48-59. (Korean)
 17. Jang ES, Yoo JH, Baek YH, Kim HS, Kim JY, Lee SW. The Association between Symptom Evaluation Index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Wome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107-121. (Korean)
 18. Sohn EH, Kwak CK, Lee EJ. Assessment of the clinical efficacy of the health index in the sasang Constitution: Short Form-36 Based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3):26-33. (Korean)
 19. Kim HJ, Lee HJ, Jin HJ, Kim MG.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al Deviation of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erspira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89-106.
 20. Baek YH, Kim HS, Lee SW, Kim SH, Yoo JH, Jang ES. Association between Health Practices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6):1521-1528. (Korean)
 2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asic Research on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Daejeon: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6:5-25. (Korean)
 22. Kim MG, Lee HJ, Jin HJ, Yoo JH, Kim J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from the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 and Cold-Hot.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6):1354-1358. (Korean)
 23. Ware, J. E., Kosinski, M., & Keller, S. D. A 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 Construction of scales and preliminary tes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Medicine Care. 1996;34(3):220-233.
 24. Ware, JE, Sherbourne CD.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F-36). I.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ical Care. 1992;30(6):473-483.
 25. 김명근. 사상체질에 다른 성격 특성에서 나타나는 후천적 체질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2007;152-153.
 26. Kim SH, Kho BH, Song IB.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 J Sasang Constitut Med. 1993;5:67 - 85. (Korean)
 27. Kim SH, Koh BH, Song IB.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 II.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187-246. (Korean)
 28. Jeon SH, Jeong SI, Kwon SD, Park SJ, Kim KK, Kim JW. A Study on the Diagnostic Accuracy Rate of the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Doctors Used in the On-line System.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82-93. (Korean)
 29. Jang ES, Kim HS, Yoo JH, Baek YH, Oh SY, Lee SW.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Health Index and THI(Todai Health Index) Score by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43-52. (Korean)
 30. Lee JM. Park SS trans. Donguisusebowon-Sasangchobongyun. Seoul:Jipmoondang. 2005. (Korean)
 31. Buckingham RM.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the four temperaments of antiquity: an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reac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2;32(2):225-246.
 32. McCrae RR, Costa PT, del Pilar GH, Rolland JP, Parker WD. Cross-cultural assessment of the five factor model: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98;29(1):171-188.